

“MLB 생존비법? 한국인 근성으로”

김하성, 후배 배지환의 질문에...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서 특별상 공동수상

“한국인의 근성으로 약착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후배 배지환(24·피츠버그 파이리츠)을 위해 ‘생존비법’을 공개했다.

김하성과 배지환은 4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2023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

을 공동수상했다.

이들은 나란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무대를 누비고 있다.

KBO리그를 거쳐 2021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하성은 올해 152경기를 소화하며 타율 0.260, 17홈런 60타점 38도루의 성적을 냈다. 아시아 내야수 최초로 MLB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탄탄

한 수비 능력도 인정 받았다.

김하성은 “미국 생활이 힘들었는데, 골드글러브라는 상이 나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거 같다.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막 MLB에서 한 시즌을 온전히 소화한 배지환에게 황금장갑까지 품

은 김하성은 동경의 대상이다.

배지환은 이날 시상식에서 김하성에 게 “생존비법이 궁금하다”고 묻기도 했다.

김하성은 “한국인의 근성으로 약착같이 달라붙었다”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MLB에서 살아남은 비결을 밝혔다. MLB 데뷔 초반 타격에서 고전했던 김하성은 2루수와 3루수, 유격수 수비를 두루 책임지며 경쟁력을 발휘한 바 있다.

김하성은 배지환에 대한 응원도 잊지 않았다. “배지환과 경기도 해봤지만, 정말 좋은 선수다. 한국에서 뛰어도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지환이가 도루왕을 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야탑고를 졸업한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배지환은 마이너리그를 거쳐 지난 시즌 MLB에 입성했다. 올해는 빅리그에서 111경기 타율 0.231, 2홈런 32타점 24도루를 작성했다.

김하성과 배지환은 지난 6월 28일 미국 팬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벌어진 샌디에이고와 피츠버그의 경기에서 첫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당시 김하성의 5타수 3안타 2타점 활약에도 샌디에이고는 4-9로 졌다. 2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배지환은 6회말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에 항의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다.

배지환은 “한국인 메이저리거 2명이 만난 경기라 주목을 받았는데, 내가 퇴장을 당했다”고 회상하며 “내년에 (맞대결) 기회가 된다면 나만 잘하면 된다.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다”며 약속했다. /뉴스시스



샌디에이고 김하성(왼쪽)과 피츠버그 배지환(가운데)이 4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2023 조아제약 프로야구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공동수상했다. (사진=일간스포츠 제공)

봉동초 배드민턴부 ‘일냈다’

주니어 국제대회 남자복식 준우승

봉동초등학교(교장 장남덕)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경남밀양에서 열린 ‘2023 밀양 윈천오픈스 코리아주니어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13세 이하 남자복식경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남자 단식 경기에서는 임효섭이 8강에 올랐으며, 복식 경기에는 구분우, 최우영, 조부건, 임효섭, 임상연, 천시우 등 6명이 3팀을 이뤄 출전했다.

이에 조부건, 임효섭 조가 결승에 올랐고, 서울과 부산의 투톱으로 구성된 팀에게 아깝게 패했지만 단일학교팀으로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장남덕 교장은 “이는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부모들과 감독, 코치들이 한마음으로 달려온 결과”라며 “특히 한국 배드민턴 꿈나무대표로 선발돼 국제주니어 오픈대회를 위해 태국으로 떠난 봉동초 조부건 선수가 더 큰 무대에서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이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1,040여 명 선수들이 참여했다. 이에 봉동초는 13세 이하 남자 단식 경기, 남자 복식 경기에 출전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의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 주니어 대회로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렸다.

이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1개국 1,040여 명 선수들이 참여했다. 이에 봉동초는 13세 이하 남자 단식 경기, 남자 복식 경기에 출전했다.

호원대 펜싱부, 대학펜싱 선수권 남녀 단체전 우승

호원대학교 펜싱부가 제24회 전국남녀대학펜싱 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4일간 해남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호원대 펜싱부는 대학부 개인전에서 예페 한다현(2년) 선수, 사브르 이혁준(3년)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고, 단체전에서는 여자에 페, 남자사브르가 우승을 했다.

먼저 여자에페 개인전에서 한다현(2년) 선수가 준결승에서 울산대 선수와 대결해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자사브르 개인전에서는 이혁준(3년) 선수가 한국체대 선수와 준결승을 치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단체전에서는 남자사브르 이혁준(3년), 한구상(2년), 임원진(2년), 김경태(1년) 선수가 4강에서 경남대를 45-36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해 강호

한국체육대학교를 접전 끝에 45-42로 이기고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에페 단체전에서도 장서현(3년), 최지원(2년), 한별(2년), 김다은(2년) 선수가 준결승에서 경남대를 44-43 짜릿한 1점차 승리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 한국체육대학교를 45-36으로 여유 있게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펜싱부 이정복 감독(스포츠클럽대학교 교수)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의 노력과 단합된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항상 펜싱부를 응원해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강희성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장 지도자 의견 직접 듣겠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지도자 팸투어 열고 도장 수련생 유치 도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태권도원 방문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장, 교수, 감독 등 지도자를 초청해 태권도원 시설 및 콘텐츠 체험과 도장 전용 상품 발전방안 간담회 등 태권도장 활성화 팸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용인대학교 태권도 동문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팸투어에는 세계태권도전문트레이너협회(이하 협회, 대표 전민우) 회원 25명이 참가해 2일과 3일 태권도원에서 진행되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

전반에 대한 소개와 국립태권도박물관 관람, 태권전·명인관·전망대 견학 등의 시간을 가졌고, 특히 지난 10월 출시한 도장 전용 상품인 ‘태권도장 가성비 여행 상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회 전민우 대표는 “태권도진흥재단이 도장 활성화를 위해 TV 광고 등을 진행하며 도움 되고 있다”라며 “태권도인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태권도원에 대해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라며 다음에는 더 많은 지도자 및 도장 수련생들과 함께 찾



겠다고 말했다. 지호철 백석대 교수는 “태권도원은 태권도인들에게 상징성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등 도장 수련생들이 태권도원을 즐겁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깨끗한 시설 운영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줄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상병 사범은 “태

권도장 가성비 여행상품은 가격과 상품의 질에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조만간 수련생들과 함께 찾을 생각이다”라며 팸투어 참가 소감을 남겼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태권도장 전용 상품인 ‘가성비 여행 상품’에 출시 두 달 만에 7백 명이 다녀가며 히트 상품이 되고 있다”라며 “태권도원이 수련생을 비롯해 태권도인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시설과 콘텐츠 운영·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장 가성비 여행상품에는 부산 양정태권도장과 경기도 여주 청도태권도장을 포함해 전주 등 전국 각지 도장에서 다니는 등겨울방학을 앞두고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무주=전문성 기자

부안군의회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김광수
의장

이현기
부의장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용님
의원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

포털사이트에서 **부안군의회** 을 검색하세요
<https://council.buan.go.kr>